

세

계

일

보

◎ 맨해튼에 코리안 앤틱 갤러리 오픈한 로버트 툴리

“한국 고미술품에 반했어요”

전통예술인과 깊은 교류

지금부터 약 15년전인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의 고미술품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는 벽안의 금발 미국인이 최근 첼시에 한국고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 아트 앤 앤틱 갤러리(40 W. 25th St. Suite #114)를 이번달 1일자로 오픈했다. 동시에 한국고미술품의 멋과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까지 같은 날자로 창립했다.

이 한국미술품 애호가 이름은 로버트 툴리. 툴리씨는 한국미술품에 대한 열정으로 그동안 맨해튼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감좌가 있으면 열성적으로 참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음악인과 전통예술인과



한국 고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 아트&앤틱 갤러리를 오픈한 로버트 툴리씨.

도 깊은 교류를 유지해 왔다.

맨해튼에 뮤직 프로듀스용 스튜디오도 함께 운영중이라고 밝힌 유지선 출신 툴리씨는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의 창립 후 첫 행사로 맨해튼에 소재한 이영희 미술관 투어 행사를 9월 6일 마련했다.

맨해튼 32 스트리트 2번지에 소재한 이 미술관에서 참가자들과 만나 미술관 관장인 성정숙씨의 안내를 받으며 함께 이곳에 전시된 한복과 한국의 고유 의상전통들을 감상할 계획이다.